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예선논술발제문

「논제1.」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후·환경협력 방안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은 도무지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22년 광복절 추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을 정상화하기 위한 소통을 시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2022년 상반기에만 17차례에 걸쳐 미사일 33발을 발사했으며 핵미사일 발사유예를 파기하고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는 등 군사안보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기에 가까운 시일 내 남북교류협력의 정상화는 소원해 보인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및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의 식량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북한은 농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노동신문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가을걷이보다 중요하고 긴박한 과업은 없다"고 강조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미국 농무부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121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안보적 긴장과 북한의 고질적인 식량난 등은 기후·환경 분야를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분야로 주목받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남북관계 정상화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남북 '그린데탕트'를 제시하였다. '그린데탕트'(Green Détente)는 환경, 생태 등을 의미하는 그린(Green)과 대립·갈등 관계를 화해·협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긴장완화(Détente)를 결합한 용어로 분단구조하에서 생태·환경 등 분야의 협력을 통해 정치·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공존을 이루어 궁극적으로 남북한 통일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그린데탕트'와 같은 기후·환경 협력은 비전통안보영역에 해당해 논의에 부담이 적고 북한이 추진하는 식량난 해결 및 산림복원 정책 등과도 일맥상통하기에 오랜 기간 정체된 남북교류협력의 마중물로서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남북 기후·환경협력의 논의는 제8차 남북 고위급회담 본회담에서 환경 등 여러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에 합의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2018년에는 두 차례의「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개최하고 양묘장 현대화,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등에 합의한 후 일부 분야에서 합의 내용이 이행되는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현재 남북관계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짧은 시간에 높은 수준의 기후·환경협력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식량 문제에 대한 강한 해결 의지를 보였고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이행과 관련한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유엔(UN)에 제출하는 등 국제기구에 비교적 열린 자세를 보여 왔기에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과의 접촉을 접근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접근방식이 논의될 수 있다.

본 논제는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가 보편적인 의제로 자리한 시점에, 경색된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기후·환경협력에 주목한다. 남북 간 기후·환경협력은 안보적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 비군사적 분야의 협력을 통해 긴장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고 산림파괴, 식량 문제, 미세먼지 문제 등 한반도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 차원에서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새로운 남북관계의 지평을 열 수 있는 창의적인 기후·환경협력 방안을 논해주기를 바란다.

「논제2.」 한반도 평화 공감대 확산을 위한 문화콘텐츠 제작·활용 방안은?

한국 문화콘텐츠의 주목도와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넷플릭스(Netflix)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에서 역대 가장 많은 시청 가구 수를 기록했고, 7인조 보이그룹인 방탄소년단의 노래는 수차례 빌보드차트 1위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의 ‘2021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분단국가 이미지를 넘어 문화콘텐츠 강국으로서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미국 백악관에 초청받아 아시아계 증오범죄 근절을 위한 목소리를 내었는데, 이는 문화콘텐츠의 영향력이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소프트 파워(soft power) 차원의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문화콘텐츠의 강세는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했지만, 북한·통일 등 남북문제와 관련된 인식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동아방송예술대학의 김현식 교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적을뿐더러 여전히 ‘적’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뿐 아니라 상당수 국가의 문화콘텐츠 속 북한은 정당한 이유 없이 테러를 일삼는 등의 단편적인 모습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이 북한에 대한 한정된 콘텐츠로 인해 막연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기도 한다. 북한·통일에 관해 타국 콘텐츠에 나타난 고정관념은 오해와 편견으로 이어져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복잡하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정부 간 외교에 비해 상대국 대중에게 문화·예술·원조 등 방식으로 공감대를 이끄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콘텐츠를 북한·통일과 연계하여 세계인의 공감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매력적인 문화콘텐츠를 제작·활용하여 세계인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국가의 관심과 협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남북문제 및 통일에 관한 의제 선점을 주도해나가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 경색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남북 문화교류는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다양한 북한·통일 관련 문화콘텐츠가 제작·활용되고 있다. 남북 대사관의 협력을 다룬 『모가디슈』나 남북 형사가 공조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인 『공조』, 『공조 2』 등의 영화는 휴머니즘과 동포애에 집중했던 예전 콘텐츠와 달리 현실성과 남북협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부산의 ‘감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기존 관광명소에 관련 콘텐츠를 투사하고자 한 시도로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모여 살았던 마을에 통일 패러다임을 접목해 사람 간 통일을 이루자는 의도를 담았다. 이렇듯 다양하게 제작·활용되는 북한·통일 콘텐츠를 발전시켜 세계인들과 공유한다면 북한·통일에 관한 심층적인 관심과 이해를 촉발해 한반도 평화 구상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제는 국내를 넘어 북한·통일에 관한 세계인의 관심을 이끌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문화콘텐츠의 가능성에 집중한다. 각국이 긴밀하게 연결된 현재,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가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기존의 문법과는 다른 문화콘텐츠의 제작·활용은 비핵화뿐만이 아닌 남북 간 화해협력, 평화공존 등 다양한 의제에 세계적인 관심을 촉발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 진전의 토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독창적인 문화콘텐츠 제작·활용 방안을 통해 세계적인 한반도 평화 공감대를 형성할 방안을 논해주길 바란다.

*본 논제의 문화콘텐츠란 남북교류를 통해 제작한 콘텐츠 및 각각이 단독으로 제작한 콘텐츠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북한·통일 콘텐츠에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의미함